“자비심으로 만든 김치공양 올립니다”

경남 하동 상선암, 11월 29~30일 쪽방주민 위한 김장행사

김치가 담긴 박스들이 상선암 앞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바로 옆 작업대엔 배추에 양념을 버무리는 바쁜 손놀림이 쉬지 않고 움직였다. 작업대 뒤를 보니 오늘 중으로 끝낼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많아도 너무 많은 양이다. 하지만 봉사자들은 양념을 얼굴에 묻힌 채 환하게 웃는다. 서울 영등포 쪽방촌 주민들에게 김장 김치를 대접할 생각에 신이 난 모양이다.

경남 하동군 상선암(주지 보성) 앞마당에 (사)쪽방촌도우미봉사회(팀장 박부득, 이하 쪽방도우미회) 회원들이 모였다. 쪽방촌 뿐 아니라 전국에 보낼 김치 담그기에 동참하기 위해서다.

상선암은 매년 김장을 담아 전국 독거노인과 소외 계층에 보낸다. 이번 김장은 11월 29~30일 이틀 동안 진행됐다. 총 5톤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양의 김장 배추를 씻고 다듬어 속을 만드는 일만 해도 하루가 넘어간다. 포장과 택배 배달까지 모두 책임진다. 택배로 보내는 주소지만 해도 전국에 100가구가 넘는다.

김장 나눔을 위해 쪽방도우미회는 서울서 29일 새벽 4시에 출발해 내려왔다. 직장일도 가정일도 일단 지금은 잊었단다. 오직 봉사로 인해 환희심을 얻는 시간이라며 기쁨이 가득하다.

배상만(66 · 서울 강서구) 씨는 “불자들이 함께 나눔에 동참하는 이 시간이 너무 기쁘다. 힘든지도 모르겠다”며 활짝 웃는다. 백선이(59 · 인천 부평구) 씨는 “새벽에 출발해 4시간 걸렸는데 힘들지 않고 매우 뿌듯하다. 많은 분들과 함께해 더 기쁘고 봉사가 생활화 된 분들보니 나도 닮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쪽방도우미회 회원들이 상선암까지 찾아 온 이유는 20년 전 인연 때문이다. 쪽방도우미회의 탄생이 상선암 주지 보성 스님의 후원으로 시작됐다.

보성 스님은 1년 중 가장 보람된 시간이라고 했다. 스님의 일상은 1년 동안 녹차 밭을 일구고 고사리, 매실, 감 등과 함께하는 그야말로 선농일치(禪農一致)의 삶이다. 그래서 농사에 거짓이 없다. 농약도 비료조차도 뿌리지 않는다. 자연에서만 나는 건강하고 맑은 것만 고집하는 것이다. 일반 농사와 달라 몇 배나 힘들고 고된 일이지만, 그 수확물을 팔고 남는 수익금을 또 전국에 회향한다.

전국 독거노인 · 소외 이웃 위해
‘선농일치’ 결과물 나눔으로 회향
김장과 배달 위해 총 3천만 원
쪽방도우미회 봉사 기쁨으로 ‘환희’

전국에 택배로 김치를 보내는 곳의 인연을 물었다. 스님은 “농사 수확물과 차를 팔기 위해 시장에 발품을 팔아 다닌 것”이 인연의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을 다니다 보니 자연스럽게 못 먹고 사는 분들이 눈에 들어왔다고.



경남 하동 상선암에서 소외된 이웃을 위한 김장행사가 11월 29일~30일 진행됐다. 이 자리에 (사)쪽방촌도우미 회원들이 함께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맨 왼쪽이 상선암 주지 보성 스님.

“수확물을 들고 마땅히 팔 곳이 없었습니다. 시장에 직접 제가 갔고 지금도 저는 인터넷 판매 같은 건 못하고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시장서 스님의 눈에 들어온 것은 구입자들이 아니라 굶어 배고픈 사람들이었다.

“상선암으로 돌아와 그분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을 찾았어요. 처음에는 쌀, 음식 재료를 보냈고 겨울에는 김치, 팥을 보내드렸는데 그분들에게 전달할 방법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만난 것이 쪽방촌에서 봉사하는 김윤석 경찰서 반장과 쪽방도우미회 회원들입니다.”

매년 김장하는 양도 늘어 올해 소비한 금액만도 3,000만원이다. 들어가는 재료도 1년 농사를 지어 만든 매실액과 국산 고춧가루, 해남 배추로 최고급이니 다음 해에도 그 이상이 소비될 것이라 예상했다.

박부득 쪽방도우미회 팀장은 현재 쪽방도우회 활동이 어려운 시기라고 설명을 이었다. 주변의 잦은 민원에 갈 곳을 잃게 된 것이다.

박 팀장은 “나눔 활동하는 동안 어려움은 언제나 있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피도 언제나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김장을 돕는 것은 무슨 뜻이겠는가? 아무리 힘들어도 봉사는 이어가겠다는 결심이다. 처음 시작된 이 자리에서 말이다”고 말했다.

쪽방도우미회는 현재 매주 목요일 무료급식을 진행하고, 쪽방 주민들을 위한 나눔 활동과 지역 돌보미로 활동 중이다.

하성미 기자

“主권은 국민에게… 목소리 내야할 때”

법륜 스님, 11월 26일 하반기 출가 콘서트서

행복한 삶을 얻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행복의 길을 찾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11월 26일 부산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본부 2층 대회의실서 하반기 출가 콘서트 ‘법륜 스님과 함께하는 행복의 길을 찾아서’를 개최했다.〈사진〉 이번 출가 콘서트는 지난 5월 상반기에 이어 2번째로 열렸다. 콘서트는 게시판을 통한 사전 질문과 즉문즉설, 그리고 가수 아웃사이더의 ‘출가 어택’으로 이어졌다. 주제는 △행복한 나라에서 살 권리 △나는 행복해지고 싶다 △행복 위의 행복, 출가를 테마로 진행됐다.

법륜 스님은 먼저 현재 국정농단 시국에 관해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지 제국이 아니다. ‘민국’이란 뜻은 주권이 곧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라며 “권리를 가진 자로 제대로 목소리를 내 실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참다운 행복을 위해서는 탐진치의 욕구를 버리고 알아차림으로 자신의 할 일을 제대로 알아야한다. 이를 실천할 때 참 행복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수행과 전법 도량으로 도약할 것”

초기불전연구원 증축불사에 불자들 모연 이어져

빠알리 삼장 역경 불사로 현대에 부처님의 원음을 전달하고 있는 초기불전연구원(원장 대림)이 수행과 전법 도량으로 거듭날 것을 발원하고 증축불사를 계획 중이다. 이를 위해 초기불전연구원 불자들이 모연에 동참하고 한마음을 모았다.

11월 29일 김해 장유 보리원 법당서 모연금 전달식이 진행됐다.〈사진〉 이 자리서 황경환 초기불전선임연구원이 5000만원, 이유현 씨가 1000만원, 신혜경 씨가 500만원을 각각 전달했다.

원장 대림 스님과 지도법사 각묵 스님은 감사의 뜻과 함께 “그동안 역경 불사를 진행하며 정기적으로 학림을 개설하고 공부 모임을 이끌었다. 모임 때마다 70여명이 넘는 불자들이 찾아 주고 있는데 장소가 협소해 마음이 아팠다”며 “앞으로 역경 불사 뿐 아니라 수행과 전법 도량으로 도약하기 위해 증축 불사를 발원했다”고 전했다.



하성미 기자

“無明 벗겨내면 자신이 바로 비로자나불”

통도사, 11월 29일 화엄산림대법회 입재법회

선재동자의 구법의 마음이 모여 화엄의 문을 활짝 열었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영배)가 제46회 화엄산림대법회 입재법회를 봉행했다. 11월 29일 설법전에는 5000여명 불자들이 자리 잡았다.

입재는 방장 원명 스님의 법문으로 시작했다.

원명 스님은 “법회가 열린 근본목적은 다른데 있지 않다. 화엄세계에 주인은 바로 비로자나부처님”이라며 “동참제자 모두가 비로자나의 근본을 지니고 있는데, 지독히도 단단한 무명이라는 껍질만 벗겨내면 비로자나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여러분이 바로 비로자나부처”라고 설했다. 이어 스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성도하시고 보니 온 세상이 화엄세계요 비로자나뿐이란 사실을 아셨다. 그 깨달음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화엄경”이라며 “화엄법회 기간 동안 멈추지 않는 구도심으로 보살도를 이루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독려했다.


영축총림 통도사는 11월 29일 제46회 화엄산림대법회를 설법전에서 봉행했다.

화엄산림대법회는 11월 29일 시작해 12월 28일 한 달 동안 열린다. 이 기간 동안 선, 교, 율의 대강백 31명의 법문이 이어진다. 아울러 매주 토요일 저녁 예불 후에는 장엄염불로 법성게가 진행된다. 이는 영가에게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유족에게는 친족을 잃은 슬픔을 위로하는 천도의식이다. 회향 법회 후 신도들은 위패와 다라니를 들고 금강계단에서 한 바퀴 돌고 고통 없는 열반 정토로 영가를 안내하고 소대에서 회향한다. 특히 이번 법회 기간 동안 법문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통도사는 법문 CD를 제작 · 보급한다.

화엄산림대법회는 1925년 극락암 경봉 스님이 어려운 이웃을 돌보기 위해 만일염불회를 개설하고 1927년 보우 스님, 해담 스님과 함께 극락암 무량수각에서 삼칠일간 법문한 것으로 시작됐다.

통도사는 “화엄산림 법회 목적에 대해 경봉 스님은 ‘유루의 법을 버리고 무루의 법을 증득’하는데 있음을 명확히 밝혀 놓으셨다”며 “이 기간 동안 문수보살의 지혜와 보현보살의 실천, 그리고 선재동자의 금강 같은 구법의 마음을 배우길 바란다”고 전했다.

하성미 기자

부산개인택시 법륜회, 자비의 후원품 전달

11월 24일 부산불교연합회 통해

부산개인택시 법륜회(회장 이상조)는 11월 24일 양정청소년수련관서 자비의 후원품을 전달했다.〈사진〉

연말연시를 맞아 소외계층을 위한 후원품으로 부산불교연합회에 쌀 330kg, 라면 50상자, 설탕 100kg 등을 지원했다. 후원물품은 (사)부산불교복지협의회 소속 기관을 중심으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지역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노인요양원, 어린이 집, 장애인복지시설 등 40여 곳에 배분된다.

이상조 회장은 “이 땅의 소외받고 고통 받는 중생을 위해서 교법을 펴신 부처님의 뜻을 잇기 위해 법륜회가 창립됐다”며 “그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에 자비를 실천해주신 법륜회 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법륜회는 2001년부터 결손가정 및 소년소녀가정 장학금 전달식, 양로원 및 고아원 방문, 수재민 돕기, 경로잔치, 독거노인반찬 만들기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비보살행을 실천했다.

하성미 기자

내장사 대웅보전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내장사
삼존불 · 후불탱화 점안식
■ 점안식 : 불기 2560년 12월 17일 (토) 오전 9시
■ 법요식 : 불기 2560년 12월 17일 (토) 오전 10시 30분
■ 문의 063)538-8741 종무실장 010-9506-7450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내 장 사

미소 조각원
泰煌(태황) : 대한민국 문화재 조각기능 보유자
불사문의 050-2879-8709 010-3629-8709
9층 석가대탑
조성기간 : 13년 6개월
높 이 : 17미터